

철새 이동철, AI 전세계 비상!



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동향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2003년 네덜란드 등 유럽지역은 물론 아시아를 중심으로 발병한 이후 현재까지 태국·베트남 및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고에서 H5N1형이 새롭게 발생되면서 시베리아에서 철새를 따라 유럽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27일 북한에서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H7)와 일본에서 6월 26일부터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발생되고 있는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2)로 인해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아시아·북미·아프리카

등 총 18개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동남아 4개국(베트남·태국·캄보디아·인도네시아)에서 H5N1형의 인체감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 일간지에서도 최근 외국 사례를 인용해 이 질병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대공황 수준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는 등 국내 양계업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2. 국내 발생 현황 및 종식보고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 12월 10일부터 2004년 3월 20일까지 10개 시·군에서 총 19건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392농

| 점검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예방대책 방안 |



가 닭·오리 등 5,285천수가 살처분·매몰이 이루어졌으며, 감염이 우려되는 인접농장 돼지·염소들까지 확대 살처분하여 바이러스 변형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당시 발생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철새를 통한 전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9월 21일 국내 종식상황을 동

표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2005.8월현재)

구 분	발생건수	형질형	인명피해		비 고	
			감염	사망		
아시아	한 국	19	H5N1	-	-	04.9.21 종식선언
	중 국	55	H5N1	-	-	
	홍 콩	4	H5N1	-	-	야생조류
	일 본	5	H5N1	-	-	04.7.13 종식선언
	태 국	1,112	H5N1	17	12	
	베트남	1,838	H5N1	90	40	
	인도네시아	216	H5N1	1	1	
	말레이시아	10	H5N1	-	-	05.7.4 종식선언
	캄보디아	15	H5N1	4	4	
	라오스	1	H5	-	-	
	파키스탄	1	H7	-	-	
	북한	3	H7	-	-	
	러시아	50	H5N1	-	-	
카자흐스탄	1	H5N1	-	-		
몽 고	2	H5	-	-	철새	
북미	미 국	4	H5N2/H7N3	-	-	04.8.17 종식선언
	캐나다	53	H7N3	-	-	04.11.23 종식선언
아프리카	남아공	?	H5N2	-	-	
계	18개국			112	57	

기구에 통보를 하면서 상황을 종결한 바 있다.

3. 발생 후 국내 대응상황

1) 동절기 AI 특별방역대책

정부 및 국가 방역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종식 이후 유입가능성이 높은 동절기 동안('04.11~'05.2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을 설정, 전국 방역기관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특별방역을 추진하였으며, 농가에서도 방역의식이 고조되면서 시군의 지원을 받아 차량소독소 설치 및 집단방역체제를 갖추며 방역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국경검역

금년 초부터 중국과 태국으로부터 열처리 가금육이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검역

당국에서는 현재까지 107건 5,970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항·항만 휴대품 검색 및 여행객 소독,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미국(H7N2, '05.6.9)과 일본(H5N2, '05.6.26)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보고되면서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때까지 닭고기 등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는데,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그동안 고병원성의 경우에만 보고 의무를 두었으나 '05년 5월 H5 및 H7 혈청형 전체를 보고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시의 폭이 넓어진 상태이다.

현재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발병지역 외에서의 수입이 허용되고 있지만, 양계인들은 저병원성이라 하더라도 수입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발생한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비발생지역의 수출에 대한 인정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는 국제적인 조율이 필요한 미묘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금년 3월 북한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다행히 저병원성(H7)으로 판명되었지만 통일부 등 6개부처에서 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남북왕래차량 등 검역을 통해 남쪽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북측의 방역 지원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통해 소독장비, 소독약품, 진단키트 등 지원(4.22/6.23 2회, 1,273백만원)을 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은 AI종료를 선언한 상태이다.

3) 국내방역

방역당국은 과거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중관리대상지역(21개 시·군)」에 대해 임상관찰을 강화한 바 있다. 그 결과 닭에서는 강원(춘천) 및 전북(부안)에서 저병원성(H9N2) 2건을 검색한 바 있으며, 오리 혈청검사(893개소 20,278건) 및 철새 분변검사(24개소 3,970점)를 실시한 결과 오리는 전남 장성(H3형) 및 광주광역시(H5N2형)에서 저병원성 2건을 검색했으며, 철새는 34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되었다.

■ AI 집중관리대상지역

울산(울주), 경기(이천·양주/안성·평택·포천·고양·김포·용인·화성), 충북(음성·진천/청원), 충남(천안·아산/연기), 전남(나주/영암·함평), 경북(경주), 경남(양산)

금년 7월에는 미국·일본 등에서의 잇따른 발생에 따라 방역 경감심을 고취하기 위해 전국 닭·오리 도축장(62개소) 및 수송차량(749대) 일제소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전반기동안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시·도(닭 19,900수) 및 검역원(오리 8,000수)에서 분담하여 닭·오리에 대한 정규 혈청검사사업을 실시한 결과 닭에서는 H9형이 3.2%의 양성율을 보여주었고, 오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1992년부터 연도별로 닭에서의 H9 양성율은 ('02) 0.7%, ('03) 8.3%, ('04) 9.4%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지난 동절기(11~2월) 특별방역기간에는 24개 철새도래지에서 3,970점을 검사한 결과 34점의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는데, 해마다 다양한 종류의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산학연과 연계하여 지난 7월부터 1년간 철새 감염실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향후 대응방안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가 철새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귀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답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방철새 출발지인 러시아와 몽골 지역의 계속적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국내 철새도래지에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철새와 직접 접촉이 가능한 방사(放飼) 오리는 물론 토종닭, 친환경을 목적으로 방사되고 있는 산란계(유정란 생산) 등의 위험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방사닭에 대해 철망을 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지난 2003년도에 2,500만수의 닭을 살처분한 경험이 있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은 벌써 방역, 예방조치에 나서고 있다. 네덜란드는 이미

가금류(550만수) 방사를 금지하고 실내 수용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독일도 북동지역에 위치한 3개주에 방사를 금지토록 조치하고 있다. 러시아산 가금류 관련 물품의 유럽연합(EU) 수출은 이미 중단된 상태다. 일본에서도 이바라기현과 사이타마현에서 7차례의 발생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병원성으로의 전

환위험 때문에 해당 농장에 대해 살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려되는 것은 사육농가들의 지난해 중반부터 양계산물 가격이 장기간 높게 형성되면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철새의 이동철을 앞두고 방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정부, 검역원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도 대책회의를 실시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1월부터 동절기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며, 검역원에서는 홍보자료를 만들어 배포에 들어갔고, 방역지원본부에서는 방역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양계인들은 지역별로 공동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의심축이 발견된 경우 검역원이나 협회 등으로 빠른 통보를 통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정리 | 김동진 홍보팀장)